



LA를 사로잡은 한국의 말·멋·맛 “대구 학생들이 멋져요!”

- 대구교육청 중·고등학생 30명 LA에서 K-Pop 공연 및 K-Beauty, K-Food, K-Game 등 체험 부스 운영
- 주말 오후 500여명 시민들이 한국문화 만끽
- 각종 체험 부스, 방문객 발길로 인산인해

□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9월 6일(토)에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Koreatown Plaza에서 ‘말·멋·맛 Korean Culture Day’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지난해에 이어 LA한국교육원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구의 중·고등학생들이 주도하여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500여명의 방문객들이 K-Pop, 태권도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즐겼습니다.

□ 대건중학교, 경상여자고등학교,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대구 지역 15개 중·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한국문화 특기생 30명은 무대와 체험 부스를 통해 한국문화를 직접 선보였습니다.

○ K-Pop 댄스와 전통 가야금·대금 연주, 태권도 시범으로 꾸며진 공연 무대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, 부스에서는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카스테라 인절미를 맛보며 한국의 멋과 맛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

○ 또한 공기놀이와 자개 키링 만들기, 한글 이름 쓰기와 딱지치기 게임은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.

□ 행사장을 방문한 20대 초반의 린지씨는 “카스테라 인절미와 매실차

는 처음 먹어봤는데 아주 새로웠다” 고 하며 “오징어 게임에서 본 공기놀이와 딱지치기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, 금세 익숙해져서 즐겁게 할 수 있었다.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” 고 말했습니다.

□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“대구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한국문화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어 기쁘게 생각한다” 고 말하며, “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, 다양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”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

□ 강전훈 교육원장은 “대구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 덕분에 코리아타운 한복관이 한국문화의 향기로 가득 찼다” 고 말하며, “이번 행사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LA한국교육원은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 라고 말했습니다.

붙임 말뚝맛 Korean Culture Day 사진 6매.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	담당자	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	담당자	



